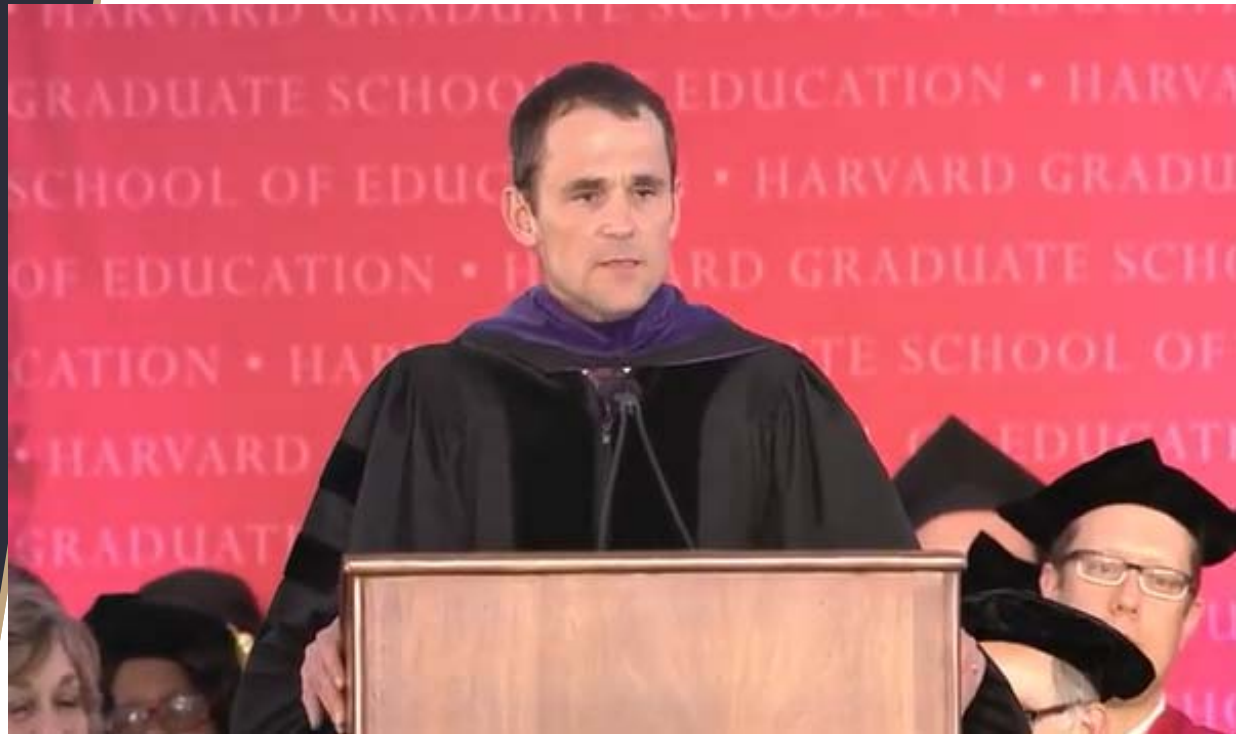


**Dean James Ryan's  
prepared remarks  
at the 2016 HGSE  
Presentation of Diplomas  
and Certificates.**



...My final suggestion is that there are five truly essential questions that you should regularly ask yourself and others. My claim is that, if you get in the habit of asking these questions, you have a very good chance of being both successful and happy, and you will be in a good position to answer “I did” to the bonus question at the end.

...제 마지막 조언은 주기적으로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물어보아야 할 5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제 주장은, 이 질문들을 물어보는 습관이 된다면, 여러분은 매우 성공적이고 행복할 확률이 높아지며, 또한 제가 마지막에 물어보 보너스 질문에 “I did” 라고 대답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The first is a question my own kids are fond of asking, and it’s one you may have heard other teenagers pose — or maybe you still pose it yourself. The question is “Wait, what?” My kids typically pose this question when I get to the point in a conversation where I’m asking them to do a chore or two. From their perspective, they hear me saying something like: “blah, blah, blah, blah, and then I’d like you to clean your room.” And at that precise moment, the question inevitably comes: “Wait, what? Clean what?”

첫번째 질문은 제 아이들이 물어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십대 아이들도 많이 하는 질문이며—또한 여러분들도 하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질문은, “잠깐만요, 네, 제가 아이들한테 집안일을 하라고 할 때 아이들은 이 질문을 보통 합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제가 얘기하는게 아마 “어찌고 저찌고... 그리고 너희들 방 청소했으면 좋겠어” 라고 들릴 것 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질문은 필연적으로, “잠깐만요, 네? 어디를 청소 하라 구요?”

“Wait what” is actually a very effective way of asking for clarification, which is crucial to understanding. It’s the question you should ask before drawing conclusions or before making a decision. The Dean of Harvard College, Rakesh Khurana, gave a great master class this year, where h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inquiry before advocacy. It’s important to understand an idea before you advocate for or against it. The wait, which precedes the what, is also a good reminder that it pays to slow down to make sure you truly understand.

사실, “잠깐만요, 네” 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때 아주 효과적인 질문이며, 이것은 무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어떠한 결론 혹은 결정을 하기 전에 꼭 물어봐야 하는 질문이다. 하버드 대학 학장인 라케시 쿠라나는 올해에 아주 좋은 석사 수업을 가르쳤는데, 그는 무언가를 지지하기 전에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무언가를 지지하기 전에 그것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잠시만요” 는 “네?” 전에 오면서, 자연스럽게 속도를 늦추고 진심으로 이해를 했는지 상기 시켜주기도 한다.

The second question is “I wonder” which can be followed by “why” or “if.” So: I wonder why, or I wonder if. Asking “I wonder why” is the way to remain curious about the world, and asking “I wonder if” is the way to start thinking about how you might improve the world. As in, I wonder why our schools are so segregated, and I wonder if we could change this?

두번째 질문은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며, 잇달아 할 수 있는 질문은 “왜” 또는 “만약에” 이다. 종합해보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왜...” 혹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보면...”이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왜” 질문은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유지시켜주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보면”이라는 질문은 어떻게 하면 세상을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다. 예를 들어, “생각해보면 왜 (미) 학교들은 분리되 있을까, 혹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The third question is: "Couldn't we at least...?" This is the question to ask that will enable you to get unstuck, as they say. It's what enables you to get past disagreement to some consensus, as in couldn't we at least agree that we all care about the welfare of students, even if we disagree about strategy? It's also a way to get started when you're not entirely sure where you will finish, as in couldn't we at least begin by making sure that all kids have the chance to come to school healthy and well-fed?

세번째 질문은, “최소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은 사방이 막혀 있어도 탈출구를 제공 해준다. 이걸 넘어서 어떠한 공통된 합의점을 찾게 해주며, 우리가 전략이나 생각은 달라도, “최소한 우리 모두 학생들에 행복을 중요시 하지 않나요?”라고 말 할 수 있다. 그리고 끝이 안보여도 시작점을 제공해주며, “최소한 시작으로 모든 아이들이 학교에서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이 있는지 부터 시작 할 수 있을까요?”

The fourth question is: “How can I help?” You are at HGSE, I presume, because you are interested in helping others. But you also know, from your time here, to be aware of the savior complex, of the stance where you are the expert or hero who swoops in to save others. We shouldn't let the real pitfalls of the savior complex extinguish one of the most humane instincts there is — the instinct to lend a hand. But how we help matters as much as that we do help, and if you ask “how” you can help, you are asking, with humility, for direction. And you are recognizing that others are experts in their own lives and that they will likely help you as much as you help them

네번째 질문은,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버드 교육대학원에 있고, 그리고 제 예상으로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여기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구원자 콤플렉스”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며, 여러분이 전문가처럼 행동하며 영웅이 되려는 심리적 요소도 염두 해야 합니다. 하지만, 구원자 콤플렉스가 있다고 해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본능을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바로 힘든 이에게 손을 건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돕고, 그리고 어떻게 물어보는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겸손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 개개인 인생의 전문가인것을 인정한다면, 여러분이 그들을 도울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The fifth question is this: "What truly matters?" You can tack on "to me" as appropriate. This is the question that forces you to get to the heart of issues and to the heart of your own beliefs and convictions. Indeed, it's a question that you might add to, or substitute for, New Year's resolutions. You might ask yourself, in other words, at least every new year: what truly matters to me?

다섯 번째 질문은, “어떠한 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죠?” 바로 뒷 이어 “나에게” 라는 단어를 붙여도 적절합니다. 이 질문은 문제에 또는 안거에 핵심을 보게 해주며 여러분에 신념과 의견에 핵심 또한 다시 확인 시켜주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새해 결심에 있어서, 매년 자신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어떠한 것이 진정으로 나에게 중요할까?” 라는 질문을 해도 좋습니다.

So these are the five essential questions. “Wait, what” is at the root of all understanding. “I wonder” is at the heart of all curiosity. “Couldn't we at least” is the beginning of all progress. “How can I help” is at the base of all good relationships. And “what really matters” gets you to the heart of life. If you ask these questions regularly, especially the last one, you will be in a great position to answer the bonus question, which is, at the end of the day, the most important question you'll ever face.

**“And did you get what you wanted out of life, even so?”**

위에 언급한 것들이 인생에 중요한 5가지 질문들입니다. “잠깐만요, 네?”는 이해의 뿌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은 호기심의 심장에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는 진전에 시작입니다.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는 좋은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어떠한 것이 진정으로 중요하죠?” 는 인생에 핵심입니다. 이 질문들을 정기적으로 물어본다면, 특히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은 제가 물어볼 아주 중요한 보너스 질문을 답할 준비가 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얻으셨나요?”**